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앞장...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취임 소감은.

▲지난 4월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7개월이 됐다. 재단 혁신과 관련한 여러 현안과 재단 정상화를 위해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묻는 시간이었다. 민선 7기 목표가 변화와 혁신, 소통임을 고려할 때 새롭고 넓은 시각으로 일선우일신 매진해 나가겠다. 재단이 복지현장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복지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민관 가교 역할을 하겠다.

-복지재단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은.

▲복지재단은 정책개발과 복지현장 지원, 위탁시설 운영을 하고 있다. 재단의 기본업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 등에 집중하고 있다.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들이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인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복지재단은 여기에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복지시설 운영까지 더하고 있는 만큼, 복지 행정의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을 평가한다면.

▲재단은 광주 복지의 중심에 있었다. 2009년 빛고을노인복지재단으로 출범해 효령노인복지타운 등 양 타운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양 타운은 노인 복지에 대한 인식전환에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타운을 이용하는 지역 어르신의 모습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풍당당'의 모습이였다.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와 관심을 끌었다.

지역 복지계 요구에 따라 재단을 새롭게 출범한 2015년 이후로는 새롭게 복지정책연구, 사회복지현장을 지원하는 등 광주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복지 수요와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재단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사회복지서비스와 커뮤니티 케어 확산 등 복지 패러다임 변화 속에 있는 만큼 거시적인 관점에서 광주 복지에 이바지하겠다.

-광주형 복지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방향과 주요 사업은.

▲재단 정관에 광주형 복지모형 창출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복지는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단에서는 포럼,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과 복지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복지정책이 중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만큼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 결정을 위해서는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단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치매 노인, 다문화



재단 혁신 추진 박차·연구기능 강화  
사회서비스원 등 패러다임 변화 대응  
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네트워크 구축  
노인타운 특성 반영 운영방안 개선

현황 등 다양한 분야를 실태조사 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광주를 대표하는 복지 사업을 개발할 계획이다.

-복지재단 혁신방안은.

▲재단 혁신을 위한 방향은 3가지다.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원 확충을 통해 정책연구기능 강화하겠다.

양 타운도 환골탈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빛고을타운은 '개방'과 '사회공헌'이라는 키워드로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 내년부터 타운 시설물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겠다.

어르신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적인 어르신 상을 개발하고 정립해갈 수 있도록 일부 프로그램을 개편하겠다. 사회공헌 캠프단을 운영해 재능기부 활성화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눔의 문화를 확

산하겠다. 전남대병원, 건강보험공단 등 기관과 연계해서 빛고을타운 내에 건강모니터링센터를 개설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예방지침을 만드는 기초작업 준비하고 있다. 지역사회 요구를 해소하고 타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하겠다. 효령타운은 다양한 사업 아이템으로 더 많은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확실한 일자리 중심 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정책 연구기능 강화 방안은.

▲정책연구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만큼 연구력 강화가 중요하다. 전문성이 뛰어난 연구 인력 확보를 통해 연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광주시 주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연구 인력 질을 높이기 위해 정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광주복지재단으로 재도약하겠습니다.”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63)는 “청문회 이후 제기된 재단 정상화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광주 복지의 큰 틀을 짜고 현장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 대표는 “앞으로 ‘신뢰받는 조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재단’으로 시민 여러분 앞에 우뚝 서겠다”며 “재단이 광주 복지 허브 역할을 위해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복지재단만의 강점으로 살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전국 7개 복지재단 중 시설을 직접 위탁 운영하는 재단은 광주복지재단뿐이다. 창업보육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강점이다. 현장의 복지 수요를 즉각적으로 반영한 시책을 개발하고, 바로 시행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재단의 정책연구는 타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 앞으로 재단은 이러한 강점을 더 확장해나가겠다. 지난해에도 1인 가구실태를 연구했는데 학계나 복지계에서 관심이 높았다. 앞으로도 광주복지재단만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 사회공헌 활동 방향은.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 화두이다. 재단 또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7월, GKL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기부금으로 6,400만원을 전달받아 지역 문화 소외계층 3,000여명에게 대회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향유사업을 추진했다. 이 밖에도 광주상생카드, 광주천 가꾸기 활동 등 광주시 출연기관으로서 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주에도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자원 리사이클과 기부 차원에서 후원 물품 500여점을 모아 무등노숙인쉼터에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앞으로도 광주복지재단은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사회적 사명을 인지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단은 전 구성원들의 결집으로 경영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힘쓰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광주복지재단이 광주 복지 정책의 중심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한다.

약 력

▲담당 출생 ▲광주고 ▲전남대 사학과 ▲전남대 대학원(석·박사) ▲서울사회복지대 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호남대 사학과 교수 ▲광주YMCA 이사 ▲일본 동경대 동양문화연구소 객원 교수 ▲호남대 복지행정·사회융합대학원장 ▲One Asia Foundation 광주회장

/황애란 기자

Advertisement for Cubicle Innovation. Text: 화장실 칸막이의 모든것 중원큐비클과 함께. 화장실 칸막이 40년 노하우로 직접 생산 및 전문시공업체 다년간의 관공서, 기업체, 상가, 병원, 학교, 어린이집, 휴게소 등 시공 및 판매 경험으로 화장실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해 드립니다. Includes contact info: T: (062)525-6993-4, F: (062)525-3832, M: 010-3647-3832, E: jwc3832@nate.com, (우)61900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502번길 20-8.